

# 18일, 공수부대 무차별 살육 진압

5·18민중항쟁이 일어난 지 한 세대가 지났지만 아직도 악의적이고, 왜곡된 시각이 존재한다. 5·18은 법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지만 지역감정에 휘둘리고, 정치상황에 좌우되면서 아직도 80년 당시의 아픔은 가지지 않고 있다.

항쟁 33주년을 맞아 5·18을 겪지 않은 세대에게 당시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1980년 5월 항쟁(5월18일~27일)을 날짜별·시간대별로 재연한다.

## 33년전 그날엔... 19일, 계림과출소앞 시민 향해 첫 발포

### 되돌아 보는 5·18

#### <1> 18일 전남대 교문

#### 19일 '화려한 휴가'

1980년 봄은 신군부의 쿠데타에 맞선 학생운동이 절정으로 치달은 시기였다. 5월17일 비상계엄하대로 7공수여단이 광주·전남지역으로 투입됐다.

18일 오전 10시 휴교령이 내려진

#### 19일, 계림과출소앞 시민 향해 첫 발포

상황에서 계엄군이 전남대 정문을 통제하고 있었다. 삼삼오오 모여든 학생은 어느덧 300명으로 불어나 자연스레 시위가 시작됐다. 이에 10시15분 공수부대가 진압봉을 휘두르며 해산을 시도했다. 10시20분, 쫓기던 학생들은 급남도로 이동했다. 오후 5시15분께 옛 전남도청 옆 노동청앞에 600명 정도가 시위를 벌였으나 무차별 진압에 급세 해산됐다. 오후 7시께 광주교 인근, 오후 8시15분께 급남도 가톨릭센터 앞 등 곳곳에서 투석전이 벌어졌으나 살상에 가까운 진압을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

2군사령부의 '계엄상황일지'에는 18일 당시 405명이 연행되고 68명 부상, 12명이 중태라고 기록돼 있다.

19일 새벽 3시께 11공수여단 1140명이 광주에 증파됐다. 이날 오전 10시 전남 공수부대의 만행을 전해들은 시민 3000명이 급남도로 모여들었다. 오전 11시30분부터 공수부대의 본격적인 살육전이 전개돼 여학생, 노인, 어린 학생들까지 무차별 폭력에 희생됐다. 공수부대원들은 3~4명이 한 조가 돼 시위 현장 주변의 건물이나 집까지 뒤져 시위 여부와 상관없이



19일 오후 장갑차를 앞세운 계엄군이 붙잡은 시민들을 구타하고 있다. <국기기록회 소장>

짧은 사람만 보이던 무차별 구타한 뒤 연행했다. 오후 3시 광주지역 기관장과 각계 대표들은 회의를 갖고, 시위 진압을 완화하도록 계엄군에 건의한다.

그러나 광주 시가지 곳곳에서 시위와 진압이 격해지면서, 오후 4시30분

계림과출소 근처에서 계엄군의 장갑차가 시위군중을 포위되자 계엄군의 시민을 향한 발포가 이뤄졌다. 첫 발포로 조대부고생 김영찬군이 부상당하고, 이에 시민들의 투쟁은 더욱 거세진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나원침 (8818) 김종두



16일 새벽 합평군 학교농공단지 내의 한 폐비닐 재생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관들이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잔물 진화는 이날 낮 12시경까지 이어졌다. /합평=황은희기자 hwang@

#### 합평 폐비닐 공장 불

#### 3억5천만원 재산 피해

16일 새벽 1시 30분께 합평군 학교면 죽적리 학교농공단지 내 한 폐비닐 재생공장에서 불이 난 것을 순찰하던 경찰이 발견해 119에 알렸다.

이 화재로 아직장에 보관된 폐비닐과 1700여㎡(약 519.4평) 규모의 2층짜리 조립식 가공 공장이 전소했고 안에 있던 굴착기와 지게차, 비닐 가공에 쓰이는 압출기, 파쇄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억5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합평=황은희기자 hwang@

#### 만취운전 사고 전 KIA 손영민 징유

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16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 치러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전 KIA 타이거즈 투수 손영민(26)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죄질과 피해자가 처했을 위험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은 점, 승용차 소유자와는 합의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손영민은 지난해 9월 21일 새벽 3시 5분께 광주 서구 관천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9%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이 경상을 입었다.

손영민은 이후 KIA 구단으로부터 임의탈퇴됐다. 임의탈퇴는 통상 큰 문제를 일으킨 선수나 은퇴를 택한 선수가 다른 팀에 가지 못하도록 구단에 묶어두려고 하는 조치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 여검사에 난 화분 보낸 이유는?

#### 고소사건 연루 도청간부

#### 검사, "마음만 받았" 되짜

전남도의회 민 도의정지원관이 최근 욕설 파문을 일으킨 광주지검 여검사에 격려성 난을 보내 빈축을 사고 있다.

16일 전남도의회와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민 의정지원관이 지난 15일 광주지검 A검사 앞으로 "많은 사람이 응원하고 있습니다"는 글귀와 함께 직함이 적힌 난을 보냈다.

A검사는 앞서 지난 3월 폭력 등으로 기소된 한 피고인으로부터 구형 뒤 욕설을 듣고 맞푼언을 해 고소를

당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민 지원관은 "도둑이 매를 드는 형국인데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욕을 듣고 있어야 하겠느냐"며 "여검사가 욕 한마디에 지나치게 질타를 받고 있는 것 같아 순수한 마음에서 보내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검사는 "마음만 받았으니 다시 가져가라"며 난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 지원관은 지난 2월 화순 부군수 재직시, 군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해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오광희기자 kroh@kwangju.co.kr

#### 5·18 초청 일본인 입국 불허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초청된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가 한국에 왔다가 입국이 불허돼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후쿠야마 신고(福山眞勲) 평화·인권·환경포럼 대표는 전남 김포공항에 도착했지만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금지 통보를 받고 귀국했다.

후쿠야마 대표는 5·18구속부상자 회의 초청을 받아 오는 18일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5·18구속부상자회 관계자는 "2011년 일본군 위안부 실태조사차 북한에 입국했던 일 때문에 입국 금지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연남뉴스

#### 진도 보도연맹 희생자 국가배상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진도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 각각 1300만~8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연남뉴스

#### 광주교육청, 경기단체 전무에 격려금

#### 선심성 논란... "대회 선전 당부"

광주교육청이 전국소년체전을 앞두고 광주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전무이사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해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까지 없었던 격려금을 올해 처음으로 지급했기 때문이다.

16일 광주교육청과 경기단체 전무이사들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전국소년체전을 앞두고 지난 14일 광주시 서구 한 음식점에서 '광주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전

무이사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소년체전 출전 경기단체 30곳 중 29개 경기단체 전무이사가 참석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자리에서 이들에게 각각 30만원씩 총 870만원을 격려금으로 전달했다.

한 경기단체 전무이사는 "뜻하지 않은 돈을 받게 돼 당황스러웠다"며 "반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감이 소년체전 현장을 방문해 각 팀 감독들에게 선수 격려금을 전달했지만, 경기단체 전무이사들에게는 준 적이 없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둔 선심성 격려금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소년체전의 경우 경기단체 전무들이 사실상 총괄하고 있다"며 "개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선수들을 격려해 달라고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심야단지내 주차 차량서 경유 흡차

○심야 시간 산업단지 내 주차된 화물차에서 경유만을 흡차한 30대 양제 화물차 운전기사가 철거형.

○16일 광주관산경찰에 따르면 김모(35)씨는 지난 9일 새벽 3시께 광주시 관산구 하남공단 내 도로에 조모(44)씨가 주차해 놓은 화물차에서 경유 250ℓ를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경유 2360ℓ(시가 42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

○김씨는 화물차 연료통의 자물쇠가 비숙하다는 점을 알고 몰류회사를 옮겨다녀 모은 5종의 열쇠로 주차된 잠금장치를 풀었는데, 경찰은 훔친 경유를 사들인 장물업자를 추적 중.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에 매우 중요합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종(물혹), 중이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기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많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중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동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 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한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회 제09X004-중-473호

www.semenergy.co.kr / greenpw.co.kr

태양광 R.P.S사업부

### "햇빛 재테크" 소용량(10~30kw)태양광 발전사업

40kw 이상 대용량 설치 가능

## 희망찬 노후를 설계하세요!

태양광 RPS발전사업이란?

사업주께서 건물(옥상) 또는 대지에 발전사업 설비용량에 따른 적절한 금액을 투자하여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시공하여 생산된 신재생에너지(전기)를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하여 판매하는 제도

**태양광 발전사업자 수익금**  
(은행 예치 대비 태양광 설치 시 약4.5배 이상 기대)

년 480만(예상수익)	1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400,000원 예상
년 960만(예상수익)	2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800,000원 예상
년 1440만(예상수익)	3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1,200,000원 예상

\*인중서 판매가격:입찰을통하여 결정

**태양광주택발전(주택용) 설치후 효과** **자부담 550 ~680만원**

기존 전기료의 약 80% 절감효과

설치비용은 1년거치 5년상환제로 결제가능(농협특화사업) 3개월 무이자가능(카드할부)

\* 3kw용량의 발전설치시 월평균 약300~400kw의 전력이 생산가능하고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욱 절감 됩니다.

(주)셈에너지 그린파워

광주 총판 TEL.1577-8905 019-624-2371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49-3 1F